

기고

작은 점점이 큰 화재를 막습니다

봄철 화재, 소방시설 점검과 초기 대응이 피해를 좌우합니다. 봄철은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지만, 건조한 환경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대비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점검입니다.

필자는 과거 화재진압 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초기 대응이 피해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규모의 화재라도 초기 진압 여부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 바로 평소의 점검입니다. 소화기 하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가 화재 확산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소화기가 제자리에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된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법을 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리 소홀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점검 하나는 화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대응이 됩니다. 평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확인하고,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순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재 소방시설 차단, 폐쇄, 훼손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작은 실천은 또 하나의 점검이자 초기 대응이며, 더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준비와 점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몇 분의 대응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듯, 평소의 작은 점검은 그 몇 분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봄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실천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점점이 큰 화재를 막습니다. 지금의 점검이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상순

이성(理性)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와 '종교적 신앙심'을 더 우위에 놓는 파스칼은 모든 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파스칼은 "나는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제365호 참조)는 말까지 내뱉고 말았다.

파스칼의 생애에 놀라운 사건은 1654년 말에 일어난 마차 사고였다. 파스칼은 사두 마차(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말의 고삐가 풀려 마차가 다리로부터 돌진했던 것.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이 경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로 하여금 본격적인 자기 성찰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와중에 파스칼은 저 유명한 '팡세',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저술했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천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번 뺨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박살내다 해도 인간은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데카르트와 파스칼(2)

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주는 아무 것도 모른다."

1651년 아버지가 죽은 후 여동생이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과는 달리, 파스칼은 사교계에 뛰어들어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였다. 노름에서 딴 돈을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문제에서 확률론을 창안하기도 했다. 1654년 11월 23일 깊은 밤, 파스칼은 회심(回心,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의 기쁨을 체험하고 포르투아얌 수도원의 객원(客員, 손님 대우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점은 수녀인 여동생에게서 입은 감화가 컸다고 한다.

당시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수회와 포르투아얌(프랑스 파리의 남서쪽 슈브르즈 골짜기에 있었던 여자 수도원)에 모인 안선파(도덕적 엄격주의를 지킨 교파) 사이에 신학상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파스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논쟁에 말려 들었다. 그는 예수회 신학의 거짓을 폭로하는 한편 그 오만 불순한 윤리를 공격하였다. 이때 파스칼이 쓴 서한문은 그 경쾌하고 솔직한 표현에 의해 프랑스어에 새로운 문체를 도입한 결과가 되었다. 『기독교의 변증론』을 쓰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

한 채 39세로 생애를 마쳤다. 사망 후 그의 가까운 친척과 포르투아얌의 친구들이 그 초고를 정리·간행하였는데 이것이 저 유명한 『팡세』의 초판본(1670)이다.

『팡세』의 제1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 제2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의 행복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이다. 파스칼은 생애의 말년에 기독교의 진리성을 변증하기 위해 924편의 짧은 문장들로 구성된 이 책을 집필하였던 것이다.

파스칼은 1658년에 치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두통이 멈추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이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4년을 지냈다. 그 와중에도 이 두통을 잊고자 사이클로이드(직선 위로 원을 굴렸을 때, 원 위의 정점이 그리는 곡선)를 연구하여 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다면, 진공 실험을 두고 파스칼과 다툰 벌었던 데카르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 내 차를 지키는 가장 작은 안전장치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다. 출퇴근은 물론 일상생활과 여가활동까지 차량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차량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다.

차량 화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엔진 과열, 전기배선 문제, 연료 누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연

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행 중 화재는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바로 차량용 소화기다. 화재는 초기 1~2분 이내에 진압할 수 있는나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운전자 스스로 초

기 진압을 시도할 수 있고, 이는 곧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현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와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일반 승용차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량 화재는 차량의 크기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 만큼, 자발적인 안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전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현

들림에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압력 상태와 사용기한을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차량용 소화기 하나는 평소에는 그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차량에 소화기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자. 그 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진수

오늘의 운세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음력 2월 22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s office and editorial board.

Large advertisement for 'Goheung Spaceship Terminal' featuring an astronaut in space. Text includes '제16회 고흡 우주항공축제' and dates '2026.5.2. (토) - 5.5. (화) 고흡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